



할머니의 선물

교안 작성 : 김혜숙
패트리샤 폴라코 글 · 그림 | 김상미 옮김
베들복 | 9,000원 | 초등 저학년

책 소개

《할머니의 선물》은 〈삶과 사랑이 아름다운 이야기〉 시리즈 중 열네 번째로, 겨울의 아늑한 실내와 눈 덮인 풍경을 배경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지는 아이들의 삶과 사랑, 희망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트리샤와 리치가 농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입니다. 할아버지가 내년 봄에 농장을 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법처럼 아이들 앞에 케이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케이 할머니는 조용했던 농장을 유쾌한 유머로 감싸 안으며 아이들의 고민을 척척 해결해 주었어요. 케이 할머니는 아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곁에서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또한 꿈꿨던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고 굳어 있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주었지요.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케이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진심 어린 행동과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케이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남긴 선물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과연 할머니가 남긴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요? 케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트리샤와 리치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할머니의 선물》에서 만나 보세요.

활동 목표

1.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2.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케이 할머니가 트리샤와 리치에게 준 도움을 정리할 수 있다.
3. 선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케이 할머니에게 편지글을 쓸 수 있다.

생각 열기

할머니의 선물

📖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해 보세요.

📖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단어 :

느낌 :

색깔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해 보세요.

- ① 크리스마스 선물로 트리샤와 리치가 갖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 ②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돌보아 온 농장을 왜 내년 봄이면 판다고 하셨나요?



- ③ 케이 할머니가 농장으로 오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④ 사탕 가게에서 만난 산타 할아버지가 한 해 동안 착한 아이로 지냈느냐고 물었을 때, 리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트리샤는 왜 할 말을 잃었나요?
- 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 트리샤와 리피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두 남매는 지붕과 앞마당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생각 펼치기

할머니는 척척 고민 해결사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난 케이 할머니는 트리샤 가족의 고민을 척척 해결해 주었어요. 케이 할머니는 퐁퐁 얼어 있던 트리샤와 리치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고 굳어 있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주었지요. 다음 그림을 보고 케이 할머니가 트리샤와 리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써 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트리샤의 엄마도 퇴근이 늦어, 한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트리샤의 가족들에게 닭고기 튀김과 브레드 푸딩 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진정한 마음 나누기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트리샤와 리치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의 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지요. 그리고 사탕 가게 옆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남매에게 초콜릿도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트리샤는 케이 할머니에게 시내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리치가 시내에서 만났던 산타 할아버지는 매일 깨진 시계를 차고 다니던 바르코비아 할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리치의 말을 듣고 트리샤는 너무 슬펐어요. 이때 산타가 없다는 말로 동생을 슬프게 한 리치에게 케이 할머니는 어떤 말을 해 주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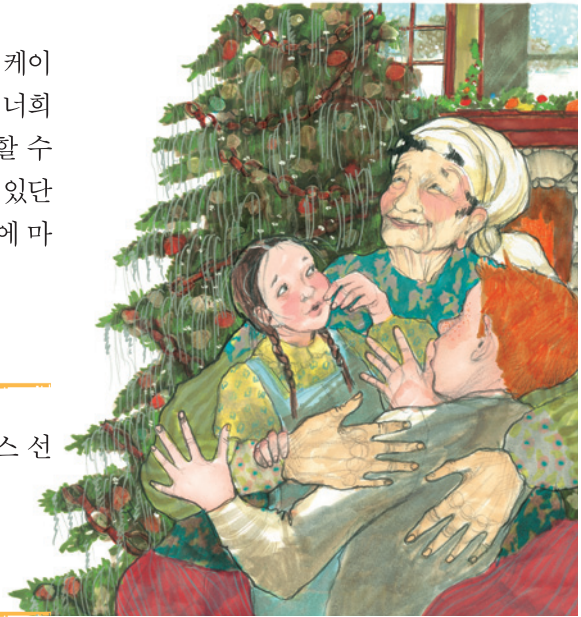


마음이 담긴 선물

📖 선물을 받을 때가 가장 좋다는 리치의 말에 케이 할머니는, “선물이라고 다 같은 선물은 아니란다. 너희가 창문 너머로 봤던 장난감도 물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단다. 선물은 마음을 담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선물에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트리샤와 리치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할머니께 편지글 쓰기

📖 케이 할머니는 농장이 팔리자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트리샤와 리치는 케이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케이 할머니가 해 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그래서 이들 남매는 더 이상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뽁뽁 얼어 있던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고 웃음을 되찾아 준 케이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글을 써 보세요.

